

## 英國政府, 電力民營化計劃案 發表

지난 2월 25일 영국정부는 오랫동안 현안으로 되어 있던 전력민영화계획안을 의회하원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영국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잉글랜드·웨일즈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잉글랜드·웨일즈에서의 현행 국유전기사업조직은發電과送電을 하는中央電力廳(CEGB)과同廳에서 도매로 공급받아 일반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12개 지구배전국과 전기사업 전반의 경영문제에 대해 계획, 조정, 자문 등을 맡는 전기회회로 성립되어 있다.

### [CEGB의 三分割]

이번의 계획안에서는 CEGB의 지금까지 독점적이던 발전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조직 형태를 제안했다.

- ① CEGB의 현보유 발전설비의 약 30%(원자력 제외)를 소유하는 신규의 발전회사.
- ② 원자력을 포함한 CEGB의 나머지 70%의 발전설비를 소유하는 발전회사.
- ③ 기타 현존 및 향후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발전사업자.
- ④ 배전회사에 의해 공동 소유되는 독립적인 전국송전회사.
- ⑤ 현재의 지구배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12개 배전회사. 이 배전회사들은 스스로도發電할 수 있지만 지역독점적인 발전공급은 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조직에서는 배전회사와 발전사업자의 영업상 관계가 계약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기회회는 폐지된다.

④의 전국송전회사는 27만5천V와 40만V의

“슈퍼그리드” 송전계통과 함께 CEGB의 스코틀랜드 및 프랑스와의 연계설비, 디노워 및 페스티니오그揚水발전소도 소유, 운영한다.

### [전국 송전회사의 역할]

현재 CEGB가 맡고 있는 배전국으로 법적으로 매공급의무는 신체제하에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전회사는 발전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든지, 스스로 발전하여 법적 공급의무를 완수하게 된다. 12개 배전회사가 공동소유하는 전국송전회사의 설립에 의해 현재 전국송전망은 그대로 유지되며, 同社는 발전소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책정과 給電指令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완수하게 된다. 따라서 배전회사는 수요가의 필요에 맞추어 가장 低코스트의 공급원을 찾아, 발전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전국송전회사의 운용은 현재의 CEGB 給電·送電部門의 방식과 거의 같다. 다른 것은 이 송전회사가 발전회사 및 배전회사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점이다.

### [경쟁원리의 도입]

1979년에 대처 보수당정권이 탄생한 이래 동정권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목적은 경쟁원리의 도입에 의한 경제의 활성화이며, 지금까지 브리티슈·텔레콤(通信), 브리티슈·가스를 비롯해 20여사가 민영화되어 왔다. 전력은 나머지 민영화후보 중에서는 가장 대규모이며 어려움을 수반하는 부문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 6월의 총선거에서 3선을 이룩한 대처수상은 그 추진역에 퍼킨슨 에너지장관을 임명하여 강

력히 추진해 왔다.

본래 경쟁에 익숙치 않은 전기사업에 어떻게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화를 도모하느냐가 민영화의 주안점이다. CEGB는 지금까지대로 發電電을 하는 단일사업체로서의 민영화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이번 계획안에서 이것을 3분割하여 법적인 공급의무를 CEGB에서 수요사이드에 가까운 배전회사에 둔 배경에는 경쟁의 이득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發電部門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의 전력민영화]

3월 2일에 스코틀랜드담당 국무장관이 발표한 전력민영화계획안에 의하면 현재 發電配電 1관경영을 하고 있는 南스코틀랜드電氣局(S-SEB)과 北스코틀랜드 水力電氣局(NSHEB)은 각각 별개로 민영화된다. 민영화에 즈음하여서는 2社間的 경계선 재평가, 몇몇 발전소의 교환, SSEB소유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2社

共有 등이 계획되어 있다.

[향후의 민영화 일정]

이번에 발표된 잉글랜드·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의 전력민영화계획안은 앞으로 의회의 심의에 회부된다. 법안의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금년 11월이나 12월쯤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실제의 주식매각은 1990년 이후가 된다.

이 계획안은 여당인 보수당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원자력의 민간에 의한 개발, 수요가의 코스트부담 증가, 저렴한 해외 석탄 수입증대에 따른 국내 석탄산업의 압박과 실업증대 등의 위험 때문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민영화 후의 전기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방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議會會期(1987년~1991년)중에 전력 민영화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처수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해결된 문제는 산적되어 있다.

## 西 獨

# 飛行機墜落事故로 原子爐安全性論議 再燃

3月末에 2台的 젓트軍用機가 西獨原子力施設近處에 墜落한 事件이 發生하여 原子力플랜트의 飛行機墜落時의 抵抗力에 대한 論爭이 再開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論難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事故에 對備해 特別히 設計돼있지 않은 6基의 西獨 商業用原子力플랜트中 어느 하나도 補強工事を 實施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安全關係者가 말했다.

原子爐安全協會(GRS)와 聯邦政府 環境/原子力安全省(BMU)의 關係者들은 西獨原子爐는 大部分 飛行機墜落時의 衝擊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있지만 모든 플랜트가 똑같이 墜落에 대한 抵抗力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GRS

는 또 原子爐플랜트에 直接 墜落하는 事故의 確率을 約 百萬分의 1로 推算하였다.

지난 3월 27日 프랑스의 F1-CR 미라즈 젓트 偵察機 1台가 뮌헨市北쪽에 있는 2基의 Ohu 플랜트에서 1.5Km(0.9마일) 떨어진 곳에 墜落했고 그 다음 날 美國의 F-16 젓트機 1台가 西獨西北部에 있는 2基의 Philippsburg 플랜트로부터 約 9마일, Karlsruhe 原子力研究센터(KFK)로부터 7마일 떨어진 곳에 墜落했다. 이 두 飛行機의 操縱士들은 모두 死亡했다. 此外에 또 한台的 젓트 戰鬥機가 3월 28日 프랑스 西北部 Bar-Le-Duc 近處에 墜落했으나 墜落地點에서 가장 가까운 原子力施設이 100Km